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식 종교개혁과 모세계 제사장들과의 신상 숭배의 상관성

주은평(성결대)

1. 들어가는 말

여로보암은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된 이후 가장 먼저 종교개혁을 단행한다. 그 이유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 절기를 위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르호보암을 추종하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설득해 여로보암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왕상 12:27). 이에 따라 여로보암이 단행한 종교 정책의 주요 내용은 1) 금송아지를 벧엘과 단에 설치하는 것 2) 벧엘에서 평민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 3) 산당 제사장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4) 절기를 유다에 비해 한 달 늦은 날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모든 계획에는 그를 옹호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일들이 왕의 직무가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자

www.kci.go.kr

이를 반대하던 제사장들은 해임되었고 그들을 추종하던 백성과 함께 레위인 제사장들은 유다로 이동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대하 11:13-16). 여로보암은 자신의 종교 정책을 옹호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그리고 단 지파가 북쪽에 자리 잡을 때부터 단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모세계 후손들은 제사장 직위를 세습하며 앗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까지 단 성소에서 직임을 수행했다(사 18:30). 여로보암이 단 지파의 모세계 제사장들과 충돌하지 않았던 것은 단 지파의 모세계 제사장들이 추구한 신상 숭배 신앙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상 숭배 신앙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분열왕국 이후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의 신상 숭배 종교정책과 단 지파 성소에서 새긴 신상 숭배를 주도한 모세계 제사장의 신앙과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중심 주제인 모세계 제사장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주제를 연구한 주요 학자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모세계 제사장 연구에 관해 기초를 마련한 학자는 벨하우젠이다. 그는 실로의 엘리계 제사

1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5-98.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Atlanta: Scholars Press, 1994), 142. P. Kyle McCarter, JR., 1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80), 89. n 2. 맥카터(McCarter)와 크로스(Cross)는 엘리가 아론계가 아닌 모세계라는 벨하우젠(Wellhausen)의 주장을 인용한다. 크로스는 엘리의 집이 본래 비-레위 계열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벨하우젠은 그의 책 126쪽에서 열왕기상 2장 27절을 언급하면서 유다 왕들에 앞서 머리오 통치자로서 행하였던 한 가문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을 언급하며 사독은 엘리나 엘리 조상의 집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다. 분명히 그는 아론계열 속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 성소인 예루살렘 제사장의 조상에 해당하는 전체적으로 새로운 계보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왕 조기의 시작부터 침입자(사독)의 연대를 결정 한다고 주장한다. 벨하우젠은 사독계 제사장을 아론계 혈통적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책을 잇는 즉, 아론 계보로 침입해 들어 온 제사장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모세의 가계를 이어오던 제사장직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비아달을 모세계 제사장의 마지막 인물로 보고 있다. 벨하우젠은 사독계가 제사장 문서(code) 속에서 불린다면 아론의 아들로 불리거나 적어도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있는 형태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다른 견해로 베르겐(Bergen)은 사무엘상 2장 27에서 "너희 조상의 집"을 아론으로 보고 그 근거로 사무엘상 14장 3절과 역대상 24장 3절을 제시한다. Robert D. Bergen, *1, 2 Samuel*, 7 vols. (NEC; Wheton: Broadman & Holman Publishing, 1996), 82-83.

장의 조상이 모세라고 제안한다. 그 근거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에서 27절의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에 내린 신탁에서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여호와와의 말씀에 대한 수취인을 모세라고 특정한다. “너희 조상의 집”을 아론이 아닌 모세로 본 것이다. 35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와 열왕기상 2장 27절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사독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여호와께 충실한 집을 가지지 않았고 충실한 집의 조상과 소유자로서 유다 왕들 앞에서 영구히 행한 사람이 없다.² 사독은 엘리의 집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으로 불려지기에 엘리가 모세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대상 6:3-8). 벨하우젠의 주장에 의하면 P 전승에서 레위 지파의 주요 가계는 모세의 장자인 게르숨이고 다른 중요한 가계는 모세계로 불리는 레위의 손자인 무시이다(대상 6:47).³ 그는 실로의 엘리 가문을 모세계를 잇는 가계로 본다. 크로스(Cross)의 모세계 제사장에 관한 연구는 모세계와 아론계 간의 갈등이다. 그는 엘리가 모세계 제사장이라는 벨하우젠의 주장에 동의하며 초기 자료에 의하면 아론보다 모세가 더 크게 부각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모든 제사장 율법을 위반하며 회막에서 제사장으로서는 행동한다는 것이(민 11:16, 17a, 24a-25, 30; 14:14; 신 31:1a, b, 15).⁴ 즉 아론과 그 후손에게 세습되

2 Wellhausen, 윗글, 126.

3 윗글, 142-43.

4 Cross, 윗글, 197-98. 크로스는 E 전승에서는 아론이 이방 신상 기초자로 소개되며 J 전승에서는 아론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는 E 전승에서 아론을 모세와 대립하는 위치에 세우려고 의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비아론계 신상 숭배자들이 아론을 송아지 숭배의 기원자로 세움으로 자신들의 신상 숭배를 정당화하고 반대하는 아론계 제사장들을 배척하기 위한 의도라고 한다.

는 제사장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모세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제사장이었다. 크로스는 벨엘과 단에서 신상 숭배를 옹호하는 비아론 계열 모세계 제사장들과 신상 숭배를 반대하는 아론계 제사장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본다. 할펀(Halpern)의 연구는 아론계 제사장과 모세계 제사장의 신학적 대립 관계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모세계 제사장들 간에도 신상 숭배에 동의한 계열과 반대한 계열로 나누어 동일한 모세계 제사장들 간에도 서로 다른 신학적 대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모세계 제사장과 아론계 제사장들의 신학적 관계를 통해 여로보암의 종교개혁 정책은 어떤 계파의 신학과 상통하며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탐구하려고 한다.

여로보암의 종교개혁과 모세계 제사장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주요 성소에서 제의 활동을 주도한 제사장들의 정체성을 연구해야 한다. 먼저 여로보암이 중요하게 여긴 벨엘과 단 성소 그리고 오랜 시간 가나안 정착 후 사울의 통치기까지 제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한 실로 성소에서 봉직한 제사장들의 계통이 모세계 제사장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그의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 계파의 제사장들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로 단 지파 성소를 중심으로 모세계 제사장들이 이고, 두 번째로 벨엘 성소 중심으로 아론계 제사장들이 있으며⁶ 셋째로 실로 성소 중심으로 실로계 제사장들이 있다.⁷ 이 제사장들이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계보와 연결

5 Baruch Halpern, "Levitic Participation in the Reform Cult of Jeroboam I",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5 (Mar 1, 1976), 32-34.

6 Mark Leuchter, "The Fightin' Mushites," *Vstus Testamentum* 62 (2012), 479-500. 모세계 제사장이 아론계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벨하우젠(Wellhausen)은 엘리계 제사장을 추적하여 올라가면 모세가 나온다고 한다. 크로스(Cross)는 다윗 왕조에서 아비아달이 마지막 모세계 제사장이라고 한다. Cross, *윗글*, (1973), 195-215.

7 Joseph Blenkinsopp, *Sage Priest Prophet*, (ed) D. A. Knigh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74. 이스라엘 왕국 이전 가장 중요한 성소는 실로였으나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이후 엘리의 후손들은

되어 성소에서 제의 활동을 했는지 탐구하면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을 지지한 제사장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단 지파의 모세계 제사장들에 의해 신상 숭배가 수용되고 백성들에게 공유되었던 예봇, 새긴 신상,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러면 당시의 우상숭배 신앙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만연된 신앙인지 알게 된다.

다윗 왕조가 국가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제의 중앙화 정책을 단행할 때, 가장 타격을 입은 대상들은 이미 각 지역의 전통적인 성지로 알려진 지방 성소와 이른바 산당이라 불리는 곳에서 제의를 수행하던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들이다.⁸ 솔로몬 왕국 이후 국가는 분열되었지만 남, 북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였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결집 되는 신앙적 흐름을 상당히 두려워한다. 여로보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적인 성소들에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의 정책은 예루살렘 성전과 지방 성소 제사장들을 특성에 따라 서로를 분리하며 서로를 결집시키는데 적잖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⁹ 이것이 지역 성소 제사장들과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이 서로 연합하며 공존하게 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여로보

새로운 제의 센터를 놓에 세운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 놓의 제사장 85명이 살육을 당한 후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은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섬겼다. 그러나 엘리게 제사장의 마지막 후손인 아비아달은 솔로몬에게 반감을 사서 아나돗으로 추방 당한다. 이후 아나돗은 약 300년 동안 예레미야 때까지 제사장 집단 거주지가 된다.

8 Wellhausen, *위글*, 151-61. 벨하우젠은 3가지 단계로 발전되는 제사장권을 주장한다. 1) 초기 시대(왕정 이전 시대)는 제사장권이 고정된 세습제가 아니었다. 2) 왕정 시대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배적이고 우세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3) 포로 후기 신정국가에서 아른게 제사장이 주도했고 레위인은 일반적으로 성전봉사자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9 Baruch Halpern, "Sectionalism and the Schism" *JBL* 93 (Dec 4, 1974), 519-20. 할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모세계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거주지에 그들을 위치시킴으로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 중심 체제는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하게 하고 지방 성소와 제사장들을 향한 관심은 분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암이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종교정책은 레위인 제사장들과의 신학적 동의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은 소위 에브라임 신학(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신상 숭배 종교정책에 담긴 신상 숭배 신학을 의미)과 소위 신명기적 신학(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여호와 제의 신학)의 대립이었기 때문이다. 두 신학 간의 대립이 되는 차이점을 비교하면 여로보암이 추구한 종교정책이 북이스라엘식 종교개혁이었고 또한 모세계 제사장들이 추구한 신학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여로보암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종교개혁을 뒤에서 성공하도록 조력한 모세계 제사장들이 이 개혁의 숨겨진 주역이었다는 사실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명기 신학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를 중심에 두며 언약 신학, 다윗 왕조의 영원성, 여호와께서 선택한 곳인 예루살렘을 강조한다. 신명기는 역사를 사용하여 언약의 필요성과 올바른 예배를 교훈적으로 가르친다.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충격적인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은 우상으로 간주되는 신상 숭배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반-성전 중앙화 정책이다.¹⁰ 그리고 벤엘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의를 재조직하고 보존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행위는 이전에 있던 제의로 돌아가는 연속성으로 보였고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은 이러한 행위가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다윗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중심 제의 개혁이 백성들에게는 더 새로운 것이었다.¹² 종합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만을 국가 성전으로 부각시키려는

10 Alison Lori Joseph, "The Portrait of the Kings and the Historiographical Poetics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Ph. 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12), 82. 반-중앙화(de-centralization)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 중앙화 정책에 대항하는 정치적 대응을 의미한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 중앙화에 대해 벤엘과 단 성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벤엘을 북이스라엘 국가 성전으로 삼았다.

11 Gray N. Knoppers, *The Reign of Jeroboam, the Fall of Israel, and the Reign of Josiah* 2 vols. (Atlanta: Scholars Press, 1994), 35.

12 Knoppers, *위* 35.

솔로몬과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성전 중앙화 신학은 지방 제사장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이미 각 지역에는 지방 성소가 위치했고 그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성지였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는 오랫동안 지방 제사장에 의해 제의가 시행 되어왔다. 백성들에게는 자신들과 가까운 이 장소와 제의 방법이 더 익숙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언약체를 대신할 대안으로 옛 광야 시절 아론의 금송아지를 불러낸다.¹³ 신명기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 출현 이전에 이미 백성들에게서 신상 숭배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전개된 여로보암의 종교 개혁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신학의 중심이 된 모세계 제사장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2. 북이스라엘의 제의 중심 성소 실로와 벧엘과 단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의 최고의 목적은 다윗의 계승자들에게 충실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적대적 선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을 당하여 자신을 적대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를 막는 것이었다.¹⁴ 그의 대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의 행렬을 북이스라엘로 돌리는 것이다. 북이스라엘로 구분되는 지역 내에는 예로부터 거룩한 제의 장소가 여러 곳에 존재한다.¹⁵ 에브라임 영

13 왕상 12:28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외친 슬로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는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운 후 외친 슬로건과 유사하다. 결코 여로보암이 창조해 낸 것이 아닌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며 솔로몬의 새로운 것에서 전통을 회복하는 이미지이다.

14 Serge Frolov, “Days of Shiloh” in the Kingdom of Israel”, *Biblica* 76 (1995), 210.

15 세겜(수 20:7; 21:20 이하), 길갈(삼상 10:8; 11:14 이하; 13:4 이하; 15:21, 33), 벧엘(삿 20:18, 26 이하; 21:2; 삼상 10:3; 13:2, 왕상 12:28 이하), 미스바(삼상 7:5 이하). W.F. Albright,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내에는 길갈과 실로와 벨엘이 있고 단도 북이스라엘에 위치한다. 여러 제의 중심지는 각기 다른 레위인 제사장 후손에 의해 제의가 진행되어 온다. 이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언약궤가 위치했던 성소가 실로이다. 이들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성소 중 성경에서 제사장들의 계보를 추적할 정보를 언급하거나 추정하게 만드는 성소는 실로와 벨엘과 단이다. 특히 벨엘과 단은 여로보암이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여겨 금송아지를 설치한 곳이다. 여로보암은 이곳 제사장들의 후원을 받아야만 정권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린 것이다. 여로보암은 모세와 아론 두 계열의 제사장들을 정치와 제의에 매우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정권 창출을 안정시키는 도구로 활용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긴다. 단 중심의 모세 계열 제사장은 신상 숭배 신학을 유지했고 벨엘 중심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신상 숭배를 배척하고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학으로 서로 대립하는 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 그런데 어떻게 여로보암 왕조를 위해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¹⁶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이 두 개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제사장들을 어떻게 규합하여 자신의 정권 창출의 지지 기반으로 삼았을까? 하는 것이다.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를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레위인 제사장들의 제의 행태에 대해서는 의외로 침묵한다. 여로보암은 벨엘과 단에서 제의 활동에 봉직했던 레위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지방 레위인 제사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했을까? 이를 연구하려면 먼저 제사장들의 계보를 통해 그들이 추구한 신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벨엘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105. 사사시대는 실로, 기브온, 벨엘, 길갈, 단에 있었고 브엘 세바 등지에도 제의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6 사사기 18:30에는 단 지파 제사장으로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중심으로 모세계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마세카(מַסֵּכָה) 속인 금속 혹은 이미지를 인정하고 섬기는 신학을 구현했고 벨엘 중심의 아론계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입장의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과 단 성소를 섬겼던 레위인 제사장은 어떤 혈통적 계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 조상의 계보를 통하여 벤엘과 단 제사장의 신학적 특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실로 성소와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여호와와의 회막을 세운 곳이 실로이다(수 18:1).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한 곳도 실로이다(수 18:10). 이후 실로는 매년 여호와와의 절기를 이곳에서 지냈고(삿 21:19)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의 제사장으로 이곳에 위치한다(삼상 1:3).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여호와와의 언약궤가 있던 곳은 실로이다.¹⁷ 이처럼 주전 11세기 중엽 실로는 여호와 성소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되었다.¹⁸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하고 실로를 정복하기까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때부터 실로는 계속하여 약 200여 년간 이스라엘 제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 멸망되어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만 통일 왕국 이전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적이고 제의적 중심지이다.¹⁹ 실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위치하며 특별히 모세계 제사장들이 활동하던 제의 중심지이다.²⁰ 실

17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와의 장막과 광야에서 사용하던 번제단이 위치했으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다(대상 16:39; 21:29; 대하 1:3).

18 M.A. Cohen, "The Role of the Shilonite Priesthood in the United Monarchy of Ancient Israel,"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6 vols. (1965), 62.

19 J. Maxwell Miller and John H. Hayes,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132.

20 Mark Leuchter, "The Fightin' Mushites," *Vetus Testamentum* 62 (2012), 482. 모세계 제사장 가문은 요단 건너, 실로, 북쪽 단성소 그리고 유대인 제의 지역에까지 넓고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했다.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6-99. 특히 통일 왕국 초기에 왕권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제사장 가문으로 모세계를 주목한다.

로가 파괴된 이후 언약궤는 농으로 이동하고 농에는 아히둠의 아들 아히벨렉을 중심으로 85명 가량의 제사장이 여호와와의 성막을 섬긴다. 이에 대해 코헨(H.M.A. Cohen)은 실로계 제사장과 농의 제사장을 동일시하는 전승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비록 그들이 혈연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그들의 기능과 권위에 연관이 있다고 관련성을 제안한다.²¹ 실로계와 농의 제사장들과의 관계성이 혈연적으로 계승되었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제사장으로로서의 연관성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크로스(F.M. Cross)에 의하면 단에는 모세계 제사장이 벨엘에는 아론계 제사장이 봉직하고 있었다고 한다.²² 할펀(Halpern)의 견해는 북이스라엘에 모세의 후손 레위인 중 세 계통의 계보가 존재한다. 금송아지 숭배를 지지하던 벨엘과 단, 두 지역에 레위인 모세계가 있었고 실로에 여로보암의 신상 숭배를 열렬히 반대하는 또 다른 모세계가 있었다.²³ 실로의 모세 후손들은 송아지 신상과 아론계 제사장권 모두에게 적대적이며 여로보암의 출애굽기 인용에 있어 모두를 향해 논쟁적이라고 한다.²⁴ 실로인 모세계 후손들은 신상 숭배를 반대하는 신학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의미이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를 비난했던 실로의 아히야로 모세계 예언자인데 북이스라엘의 모세계라 하여 모두가 동일

21 Cohen, 윗글, (1965), 65, 주 18) 참조.

22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8-99. 크로스는 왕상 12:31 이하의 내용이 모세계 단 제사장권을 세우려는 전승에서 온 것으로 이 신명기적 모세계 자료가 레위인 후손 벨엘의 아론계의 기술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즉, 벨엘 제사장이 아론계 후손이라고 본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벨엘 우상 숭배의 원형인 금송아지를 세운 죄를 아론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로스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국가 성소에 하나는 모세계를 하나는 아론계 후손 제사장을 등용하여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게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론계 후손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수용하여 벨엘 제사장으로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23 Baruch Halpern, "Levitic Participation in the Reform Cult of Jeroboam I",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5 (Mar 1, 1976), 40-41.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해 큰 심판을 예고한다(왕상 14:8-11).

24 Halpern, 윗글, 33-34.

한 신학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히야가 모세계로 추정되는 이유는 구약 성경에 실로니(שִׁילוֹ/실로사람)라는 용어는 드물게 나타난다(7회).²⁵ 그러므로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2절에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여로보암을 향한 맹렬한 비난은 왕에 의해 종교적 개혁이 주도되는 것을 엘리게가 명확히 반대한 증거로 간주된다.²⁶

사울에 의해 놉의 제사장들이 모두 살육된 후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성이 완공된 이후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 다윗은 언약궤가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다윗 자신에게 귀속되게 한다. 본래 언약궤는 여호와께서 분권화된 지파 구조의 보증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이를 바꿔 자신의 성에 머물며 성장하는 강한 왕조를 지지하는 존재로 바꾼다.²⁷ 코헨은 실로의 제사장권의 독립이 끝나고 왕권 아래로 들어가 왕이 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게 된 것을 슬픈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²⁸ 사울에 의해 놉의 제사장이 살육을 당한 후 아비아달만 살아 다윗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면서 독립적으로 계승되던 제사장의 상속권이 왕에 의해 임명되는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아비아달의 제사장권은 백성에게 충성을 명령할 수 있는 오랜 지도권과 그들을 통해 힘을 만들어 낼 수 있었지만 사독의 힘은 왕에게서 부여된 것으로 왕가에 충성을 다 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²⁹ 코헨은 왕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 후 실로 사람의 거주지인 아나돗으로 보낸 것은

25 Serge Frolov, "Days of Shiloh" in the Kingdom of Israel", *Biblica* 76 (1995), 216. 왕상 11:29, 12:15, 15:29; 대하 9:29, 10:15; 대상 9:5; 느 11:5) 그 중 5번이 한 가지 특성과 연결되는데 엘리게와 유사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 안의 2번은 유사어로 사용되지 않음. 아히야가 모세의 후손 예언자라는 계보로서의 증거는 없다. 그러나 아히야가 모세계 예언자로 여겨지는 이유는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실로 사람(엘리게)으로 불려졌기 때문이다. 엘리게는 엘리의 후손 제사장으로 모세계 제사장으로 분류된다.

26 Frolov, 앞글.

27 Cohen, 앞글, (1965), 88.

28 앞글, 87.

29 앞글, 87.

모세계인 실로 제사장들이 아직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여전히 막강한 왕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호와 사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⁰ 아비아달의 추방은 실로계 제사장권이 가진 지파를 초월한 여호와와의 종으로서의 위치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사장은 왕실에 종속된 임무 수행자로 전락하게 된다. 오히려 왕이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행동한다(왕상 8:22; 9:25). 이러한 솔로몬의 실로계를 향한 경계는 실로계의 내적 불만을 야기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증거는 솔로몬의 사후 즉시 왕국 분열로 이어진다. 이때 실로 사람 아히야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통보한다(왕상 11:31 이하). 실로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의 왕권을 인정하는 후원자들이 된다.³¹ “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는 슬로건은 왕조가 없던 평온한 날, 그들이 장로와 사사에 의해 인도되던 때, 여호와와 실로 사람 제사장들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었던 때를 상기하게 만든다.³²

2) 벧엘 성소와 제사장

벧엘은 야곱의 기사와 연결되며(창 28:11-22)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제의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창 35:1-15). 또한 벧엘은 단 성소의 기원이 되는 미가 집의 우상이 있던 곳이다(삿 17-18장). 가나안 정복 이후에 벧엘은 아론의 후손들에 의해 제의 중심지로 유지된다.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벧엘 성소 언약궤 앞에 위치한 전승을 포함한다. 추가로 여호수아 24장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벧엘로 여겨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묻는다. 이러한 왕국 이전 벧엘과 연관된

30 윗글, 90. 왕상 2:26 참조.

31 Cohen, 윗글, 92.

32 윗글, 93.

아론계 제사장들의 활동은 벧엘 중심으로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³³

여로보암이 벧엘에 신상 숭배를 위해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왕의 성소로 만든다. 역대기상 11장 15절에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숲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기록한다. 이러한 행위를 반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벧엘에 한정된 제사장들이 아니라 모든 지방에서부터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 왜냐하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대하 11:13-14). 여기서 여로보암의 신상 숭배를 반대하여 해임된 벧엘 제사장이 있었고 반대로 신상 숭배를 옹호하여 벧엘에 남기를 원했던 아론계 신상 숭배 옹호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벧엘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이용하는 산지 길 가까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단 지역은 이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려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먼 곳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이 된다. 갈릴리 주변 거주자들에게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보다 두 제의지를 선택하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³⁴ 북이스라엘에서 단 성소는 최북단에 위치하고 벧엘은 최남단에 위치하여 중앙 정부와 지역적 불만족을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³⁵

33 Halpern, 윗글, (1976), 34.

34 Wesley I. Toews, *Monarchy and Religious Institution in Israel under Jeroboam I* (SBLMS 46-47; Atlanta: Scholars Press, 1993), 71.

35 Halpern, 윗글, (1976), 32. 주석 5) 참조. Eduard Nielsen, *Shechem: A Triaditio-Historical Investigation* (Copenhagen: G.E.C. Gad, 1959), 195-98. 닐센은 역사적으로 단에 송아지가 세워진 적이 없다고 제안한다. 왕상 12:30의 분문을 "그래서 백성들이 단에서조차 그 하나(벧엘 송아지) 앞으로 왔다"고 기명한 해석을 한다. 벧엘의 금송아지는 가장 먼 최북단에 있기에 매년 순례자를 만들었다. 그의 주장은 남쪽 벧엘에 송아지를 두고 가장 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벧엘에 순례자로 왔다는 것이다. 닐센은 나중에 전승가들이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여 28-29절 내러티브에 두 번째 송아지를 삼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할퍼ンは 이에 반대하며 루시안(Lucian) 역본(시리아 헬라이어 역본)을 보면 아모스 8장 14절

알베르츠(Albertz)는 벤엘이 아론계 제사장들이 섬겼던 곳으로 여로보암에 의해 송아지 신상 숭배가 행해졌던 곳이라고 한다.³⁶ 알베르츠가 벤엘 제사장이 아론계 후손이라고 주장한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야만 했는데 특히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모든 합법적인 제사장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2.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에서 주목할 것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벤엘에서 재직 중이었음을 가리킨다. 3. 여호수아 24장 33절에서 엘리아살 혹은 비느하스의 무덤 전승이 기브아-비느하스에 있었고 그곳이 아론계와 에브라임 산지 간의 지역 간 연결이 있었다는 가정을 뒷받침 한다.³⁷

크로스는(Cross) 아론의 송아지 전승에 관한 논쟁 양식이 옛 북쪽 제사장인 비아론계열 경쟁 제사장에 의해 기원하여만 한다고 한다.³⁸ 그 이유는 아론이 E 전승에서 북쪽에서 이방 제의 기초자로 나오고 여호와 전승에서는 이 사실이 생략되고 있는데서 추론한다.³⁹ E 전승에서 아론이 우상의 원형인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고 이 죄를 아론에게 돌리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크로스는 이를 근거해 벤엘의 모세계가 아론계를 향한 논쟁으로 보았으며 아론계 제사장 가운데 아론의 신상 숭배를 지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여

에서 이 주제를 매우 무게 있게 다루는데 “사마리아의 죄인들이” 외쳐라 “오 단아,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것은 물론 금송아지를 의미한다고 하며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실재했음을 주장한다. 할 편의 흥미로운 추측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거하신다면, 송아지 사이에 거주하신다는 생각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볼 때, 벤엘과 단에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상징적 보좌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6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1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1994), 145.

37 Albertz, *윗글*, 1:145, 310, 각주 59) 참조

38 Cross, *윗글*, 198.

39 *윗글*, 198.

지를 두고 있다.⁴⁰ 그러나 할펀은(Halpern) 아론계가 벨엘 성소에서 축출되고 모세계가 등용된 것은 북쪽 제의 설치를 위한 모든 이유와 충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⁴¹ 종합하면 벨엘 성소는 아론계 제사장 중심으로 제의가 행해져 왔고 여로보암의 신상 숭배 정책 채택으로 신상 숭배를 반대하는 아론계 제사장들이 축출되고 신상 숭배를 반대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금송아지가 설치된 곳에서 계속 제사장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벨엘은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유다의 국가 성전인 예루살렘을 상대하는 북이스라엘의 국가 성전이다. 벨엘은 국가 신의 집, 고대 국가적 결집, 전승을 통한 정권의 합법성을 신앙으로 집결하게 만드는 중심점이다.⁴² 여로보암은 중앙 성소인 벨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 모두를 위한 여호와적 신앙을 북이스라엘화(현실에 맞게 적용한)한 북이스라엘의 일반적 정체성을 창조한 쿠데타에 성공한다.⁴³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의 자부심 못지않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벨엘(Beth-El)이 우주의 배꼽이라고 생각한다.⁴⁴ 벨엘의 지형적 산지는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 중심 성지를 동반한 개념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언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여로보암이 유다의 중심 제의 성지인 예루살렘과 상대할 북이스라엘의 중심 성지로 벨엘을 부각시킨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국가 성전으로 선택한 벨엘은 가나안 정착 초기에 아론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수호하던 곳이다. 사사시대에는 미가의 신상이 모세계 레위인에 의해 숭배되던 곳이다. 아론계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이곳 성소에서 제

40 윗글, 199. Cochell, "The Religious Establishments of Jeroboam 1", SCJ 8 (2005), 97. 코첼은 아론계 제사장이 벨엘에서 언약궤가 이동한 후 벨엘에 언약궤 대신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41 Halpern, 윗글, (1976), 35.

42 Jules Francis Gomes, *The Sancturay of Bethel and the Configuration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125.

43 윗글, 125

44 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59), 37-42.

사장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 속에는 아론의 신상 숭배에 옹호하는 제사장과 신상 숭배를 반대하는 제사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단 성소와 제사장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한 사사기 18장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그것은 마소라 원본에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로 기록한다. “모세의 손자” 대신에 “므낫세의 손자”로 기록한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단 지파 성소에서 미가가 만든 신상 숭배를 섬기던 제사장이 그들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자와 그 후손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긴 흔적이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대신 므낫세로 이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이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젊은 레위인 제사장이 요나단인가 아닌가? 라는 진위의 문제⁴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모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새긴 신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어 북이스라엘 멸망의 날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한 구절에 모세계 제사장들의 흔적 500여년의 행적이 압축되어 있다. 여로보암이 신상 숭배 정책을 계획한 내면에는 단 성소의 제사장이었던 모세계 제사장들과 상통하는 신학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상 숭배를 수용하는 신앙이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들의 언약궤 중심 제의 신학은 신상 숭배를 죄악으로 명시한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단지파의 모세계 제사장들과 연합하여 신상 숭배 신앙을 북이스라엘

45 Cross, 윌글, 198. 크로스는 게르솜을 모세 손자의 이름을 딴 모세계 씨족으로 이해하고 있다.

식 종교개혁의 중심 신학으로 채택하게 된다.

사사기 18장 30절에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는 내러티브는 미가의 집에 고용된 레위인 제사장을 단 지파 모세계 제사장 계보에 연결시킨다. 할핀은 이 기록이 북왕국에 관한 선전의 일부로 에브라임의 기록이라고 주장한다.⁴⁶ 여로보암에게 있어 모세계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워 북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신학이 마치 모세 신앙의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가시적 명분으로 보이기에 좋은 것이다. 사사기 저자는 미가의 집의 신당의 위치가 벧엘에 있거나 벧엘에서 가깝다는 것을 암시한다. 모세의 자손 레위인이 미가의 신당을 섬겼으며,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언급된 이 신당이 아론계 제사장이 벧엘 성소에 소속되기 그 이전에 세워진 것이다.⁴⁷ 결국 미가 내러티브에 의하면 왕국 분열 이전 아론 자손 제사장이 벧엘에서 섬겼고, 아론 자손에 앞서 그곳에 모세 자손 레위인이 섬겼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할핀은 분열 왕국 이후 모세계 제사장에 의한 여로보암의 국가 제의 중심지로서의 벧엘 성소의 부활은 모세계 제사장이 섬겨야 할 성소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자신의 북이스라엘화 된 종교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에브라임에서 신상 숭배를 반대하는 아론계 제사장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적 완성이었다.⁴⁸ 여로보암이 벧엘에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한 것은 금송아지 숭배의 기원을 아론에게 두어 금송아지 숭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를 근거하여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반대하는 아론계 제사장들을 축출하기 위한 -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 - 고도로 계산된 책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모세계와 아론계 제사장들을 너무 물리적인 시각으로 양분화하려는 견해로 보인다.

46 Halpern, 윗글, (1976), 38.

47 Halpern, 윗글, 38.

48 Halpern, 윗글, 38.

모세계 제사장들이 아론계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론을 금송아지 숭배의 기원자로 인용했다는 견해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분열왕국 이전부터 모세계는 신상 숭배 옹호자들이고 아론계는 신상 숭배 배척자들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역대상 26장 24절에서 28절에서 다윗은 모세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 즉 전쟁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 성물 공간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번제단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는 아니었으나 모세계 모두가 신상 숭배 옹호자로 구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배척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들은 사무엘, 사울, 다윗에 이르기까지 성막에서 성물을 관리하며 언약궤 위에 좌정하시던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들이다. 또한 실로의 제사장들이 모세계 후손이라도 여로보암의 신상 숭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기에 모세계가 모두 신상 숭배 옹호자이고 아론계는 모두 반대자였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크로스의 견해처럼 여로보암은 베엘에 있던 아론계 제사장 가운데 신상 숭배 옹호자들을 베엘 제사장으로 기용하였을 것이다.⁴⁹ 또 다른 증거는 모세계라 할지라도 실로 성소의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 매우 신랄하게 비난한다(왕상 14:9).⁵⁰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그들을 남유다로 추방한 것은 아니다. 다윗이 국가 제의를 위한 제사장으로 북쪽 성소인 실로의 엘리 집안의 모세계 후손인 아비아달을 임명하고 헤브론의 아론 가문 후손으로 사독을 임명한다.⁵¹ 다윗은 두 명의 제사장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힘의 균형을 중심 성소에 두었다. 유

49 Cross, 윗글, 199.

50 아히야는 예언자로 언급되나 당시에는 예언자와 제사장의 임무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은 예언자였지만 제사장의 임무도 수행한다. 그래서 아히야를 모세계 예언자이며 제사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51 Cross, 윗글, 208

사하게 여로보암 역시 벧엘 성소에 신상 숭배를 옹호하는 아론계와 모세계를 임명하고 단 성소에 모세계를 임명하여 이스라엘에 두 곳을 국가 성소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로보암이 다윗의 방법을 모방하여 두 계파인 모세계와 아론계 제사장 가문을 소외됨 없이 활용한 것이다.⁵² 분명한 것은 여로보암이 벧엘을 북이스라엘 국가 성소로 만들고자 아론계 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신상 숭배 정책에 옹호한다면 그들을 기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지파 거주 지역에는 단 지파에 의해 세워졌던 성소가 있다.⁵³ 이곳은 모세의 후손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제의 성소로 남는다.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 북쪽 지역 백성들이 남쪽 먼 예루살렘 성전까지 제사하기 위해 내려가는 것을 막아 단에서 제사하게 한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은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했던 북쪽 지역 거주민들 배려하는 말씀으로 보이며 그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다.⁵⁴

4) 산당과 비레위인 제사장

여로보암의 죄는 오래된 사본에는 단수로 표기된다. 그 죄는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죄이지만 점차 후대로 가며 죄는 복수형으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

52 Cross, 윗글, 211.

53 Cochell, "The Religious Establishments of Jeroboam 1", *SCJ8* (Spring, 2005), 89. 코첼은 단 지파가 이주한 라이쉬(Laish)로 알려진(삿 18:29) 도시는 이미 기원전 3000년경부터 광범위하게 거주하던 곳으로 단 지파가 이주했을 때 이미 오래전에 세워진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Gösta E.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551. Raine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1: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Monarchy* (SCM Press, 1994), 143, 각주 33) 참조.

54 신 14:24)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고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산당을 언급하며 죄를 추가하는 경향을 보인다.⁵⁵ 그의 죄가 후대로 가면서 추가되고 체계화된다. 북이스라엘은 높은 곳마다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 여로보암이 뿔엘에서 임명한 비레위인인 평민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일하게 한다. 할펀은 학자들이 비레위인 제사장이 여로보암에 의해 실제로 임명되었다는(왕상 12:31-32)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⁵⁶ 그러나 비레위인들이 제의적 임무를 수행한 언급은 사사기 마지막 장들에서와 사무엘서에 나온다. 비레위인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한 경우 혹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사사기 17장 5절에서 미가가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자신의 집, 신당 제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은 실로에서 가장 중요한 제의 대상인 언약 궤를 지키는 사람으로 임명된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하며 자신이 직접 레위인의 임무이고 권리인 희생 제사를 두 번이나 거행했다(삼상 13:9; 14:35). 마지막으로 다윗의 통치기간 동안 그의 아들은 제사장에 임명되었는데, 언약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 온 후였다(삼하 8:18). 이러한 예들은 여로보암이 큰 죄를 합리화하며 레위인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구실이 될 수도 있다.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 전 지역 산당 제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수의 제사장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5 Juha Pakkala, "Jeroam Without Bull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0 (2008), 501.

56 Halpern, *윗글*, (1976), 37. Serge Frolov, *윗글*, 215. 주 29) 참고

3. 가나안 정착 이후 북이스라엘 단 지파의 우상의 기원

하나뿐인 여호와와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 년에 세 번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 언약궤는 하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 보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없는 대신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다.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기원이 되는 우상인 에봇과 새긴 신상 그리고 금송아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에봇

강승일은 에봇을 크게 세 가지 용도로 해석한다.⁵⁷ 첫째가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다. 둘째가 우상에게 입히는 의복이다. 셋째가 제사장이 짐을 칠 때 사용한 도구였다. 에봇은 본래 제사장의 제의 의복이었고 가슴에 흉패를 물린 보석이 있었고 그 뒤에 우림과 둠뭇이 있어 하나님께 물으러 와서 물을 때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뭇으로 답을 해주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긴 적도 있지만 아히야 제사장의 에봇이 전쟁의 언약궤 대신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삼상 14:18).⁵⁸ 북이스라엘에서 에봇은 분명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마다 답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옷 이상의 것이다. 제사장 아비아달도 홑에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때 에

57 강승일, "우림과 둠뭇 그리고 언약궤",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20-23.

58 LXX역에서 και εἶπεν Σαουλ τῷ Αχια προσάγαγε τὸ εφοῦδ ὅτι αὐτὸς ἦρεν τὸ εφοῦδ ἐν τῇ ἡμέρᾳ ἐκείνῃ ἐνώπιον Ἰσραηλ(And Saul said to Achia, Bring the ephod; for he wore the ephod in that day before Israel) 사울이 아히야에게 언약궤가 아닌 에봇을 가져 오라고 했고 아히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한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비아달을 불러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답을 얻는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왕의 통치 기능으로 하나님께 앞일을 물을 때 에봇은 왕을 인도하는 지침이 된다. 사사기 18장에서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을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할 때 레위인 제사장과 함께 이동한다. 단 지파 사람들은 에봇을 미래를 묻는 용도로 사용한다(삿 18:5-20). 에봇은 기드온 때에도 만들어졌는데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위했다(삿 8:21). 다른 본문에서는 에봇이 드라빔과 함께 언급되는데 우상을 입히는 옷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⁵⁹ 종합하면 중요한 미래를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드라빔과 같은 우상에게 입히는 옷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신성한 물건으로 숭배한다.

2) 새긴 신상

미가의 집에 있던 새긴 신상은 미가가 자신의 집에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신상은 새긴 신상으로 단 지파에 의해 미가의 집에서 탈취한 것이다. 이 새긴 신상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약 500년 가량 북이스라엘에서 숭배의 대상이 된다. 물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때에도 이 새긴 우상은 단 성소에 존재한다. 이러한 단 지파의 모세계 후손들에 의한 유형의 신상 숭배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형상화 된 존재이다.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는 다른 것이다. 새긴 신상은 금송아지 신상으로 대변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 신당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미가의 모친에 의해 바쳐진 페셀 우마세카(פֶּסֶל וּמַסֵּכָה)

59 강승일, 율글, 123.

בולטן/주상)로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송아지 우상(bull icon)과 동일시한다.⁶⁰ 마세카(מַסְעָה/녹인 금속 혹은 이미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용례는 주물로 된 우상을 의미하는데 사용한다(출 32:4,8; 신 9:12,16; 27:15; 왕상 14:9; 호 13:2). 그 우상 문맥에서 황소 우상을 연상하게 한다. 호세아에서 마세카는 에브라임 은으로 은장색이 만든 사마리아 황소로 묘사된다.⁶¹

3) 금송아지

윌브라이트(W.F. Albright)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 금송아지 위에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서 계신 여호와를 대신하게 했다고 한다.⁶² 금송아지 자체가 여호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로-팔레스타인에서 신의 형상을 그린 도상학에서 신은 항상 동물의 등위에서 있거나 동물들이 위에서 있는 신의 보좌를 지탱하는 것으로 표현된다.⁶³ 그러나 정중호는 이 금송아지는 받침대가 아니라 신의 현현을 상징하며 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법궤와 마찬가지로 신의 현현의 상징물로 본다.⁶⁴ 처음 의도는 금송아지가 받침대의 의도로 세워졌더라도 결국 숭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금신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송아지 숭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 이래로 친숙했던 제의 행위를 다시 소개한 것이다.⁶⁵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벨엘과 단에 두고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에게 말했던 그 금송아지를 소환한다. 그리고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소개한

60 S. Talmon, “Divergences in Calendar-Reckoning in Ephraim and Judah,” VT 8 (1958) 46-74; W. Beylerlin, *Origins and History of the Oldest Sinaitic Traditions* (Oxford: Blackwell, 1961), 128.

61 Halpern, *윗글*, (1976), 36.

62 W.F.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0), 229.

63 *윗글*, 229.

64 정중호, “여로보암 1세의 종교 정책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권, (1996년 12월), 27.

65 Yosef Green, “Jeroboam Ben Nanat: a reappraisal,” *Jewish Bible Quarterly* 44 (Apr-Jun 2016), 100.

다. 왜 아론의 말을 인용한 것일까? 학자들은 여로보암의 의도에 신상 숭배를 반대하던 아론계 제사장 후손들을 공격하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⁶⁶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금송아지 신상이 여로보암이 새롭게 고안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조상들도 섬긴 적이 있던 그들이 아는 신상이라는 친숙한 의미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의도로 본다면, 크로스(Cross)는 여로보암이 벰엘에 금송아지 단을 세운 것은 예루살렘과 옛적 실로에 있던 언약궤 위의 그룹을 송아지 신상으로 대체하려고 한 것으로 예루살렘을 외적으로 본뜨려는 시도였다고 한다.⁶⁷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움으로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되었고 다양한 지방 제의 장소를 세워 예루살렘 중심 제의 중앙화를 분산시킨다.

4.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대 제의에 관한 신학적 차이

여로보암이 왕권을 장악한 후 다윗 왕조 아래에서 체계를 잡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 중심의 제의 양식과 레위인 제사장 제도를 과감히 탈피한다.⁶⁸ 그리고 북이스라엘화 된 종교 제도를 시행한다. 어떤 학자들은 여

66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8.

67 윗글, 279. 주 22.

68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길 때 초원이 딸린 성읍에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성 여호와와 언약궤를 두기 위해 장막을 친 곳으로 모셔온다. 이때까지 기브온 산당에 모세의 장막이 있던 곳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사독을 다윗성에 장막을 치고 언약궤를 모셔 온 곳에서 제사장 임무를 행하게 한다(대상 16:36). 또한 다윗은 레위인 30세 이상인 38,000명을 성전을 보살피는 일에 24,000명을 관원과 재판관으로 6,000명을 문지기로 4,000명을 악기로 찬송하는 사람에 임명한다(대상 23:5).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사독을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임명한다(왕상 2:27, 35). 이때부터 아론계 제사장 후예들인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된다(대하 31:10; 라 7:1 이하)

로보암이 제시한 종교 변혁은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것이었다고 한다.⁶⁹ 그러나 이 주장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을 기준으로 보았을 경우이며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여호와 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같은 탈-율법적인 혼합주의 모습을 하고 있다.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이 율법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계 중심 신앙으로 개혁하는 것이라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탈-율법적으로 여러 곳에 지방 제의 성소를 확산하여 백성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백성 중심 신앙으로의 개혁이다.

1) 북이스라엘의 신학과 정치적 관계

알스트롬(Ahlström)은 여로보암이 벰엘과 단에 성전을 건립한 이유에 대해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왕권 강화를 위한 정부 행정 조직의 일환이라고 한다.⁷⁰ 고대 근동에서는 수도에 왕의 신전이 위치했는데 그 이유는 근동에서는 왕이 행정과 종교의 수장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사장들의 권위를 왕권 아래 복속시켜 종교로 정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백성 간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활용한다. 벰엘 제사장과 레위인을 제외한 여로보암에게 임명권이 있던 산당 제사장들은 충분히 왕의 정치적 보좌역할을 감당해 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좋은 예가 아모스 7장 10절에서 벰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남유다의 예언자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한 여호와와의 심판 신탁을 중지하고 남유다로 내려가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고 공격한다(암 7:12).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벰엘과 단의 제사장들과 산당 제사장들은 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부 조직체로 볼 수 있다.

69 Cross, 윗글, 199. 크로스는 여로보암이 개혁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제의와 제의 장소 설치에 있어 다윗의 구식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권력의 찬탈자로서 다윗 가문을 대항해야 했고 위대한 예루살렘 언약의 성소에 대항해야 했다.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세계와 아론계 제사장의 경쟁 제사장 가문을 어느 쪽도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두 국가 성소를 선택했다.

70 G.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552.

맥카터(McCarter)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실체화’로 정의하는데 본질이 추상적인 특성에 부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⁷¹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여호와와 본질적 형태가 인간화되었고 신으로 간주 된 것을 말한다. 그 예가 쿤틸렛 아주드와 키르벳 엘콤의 비문에 언급된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이다. 맥카터는 이 비문에서 아세라가 가나안 여신 혹은 제의 대상이 아닌 여호와와의 역동적 임재의 표시의 본질적 형태의 인간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⁷² 엘라판틴에서 유대인은 야후(=여호와)와 벤엘(=성전이 인간화 된 신)을 숭배한다.⁷³ 벤엘의 신 숭배는 고대 이스라엘의 행위로 예레미야 48장 13절에서 증언한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솟염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위해 친히 제사장을 세운다(대하 11:15). 이것은 분명 종교혼합주의로 여호와 다원주의를 추구해 나간 증거이다. 신명기 개혁 운동이 일어난 이후 중앙 성소만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예루살렘 외의 다른 성소는 불법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시기가 정착된다.⁷⁴

2) 남 유다의 신학과 정치적 관계

남 유다의 신학은 소위 말하는 신명기 신학으로 두 개의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다른 형상과 신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이다. 지방 제의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으로 나뉘질 수 없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한 가

71 P. Kyle McCarter, "Aspects of the Religion of the Israelite Monarchy: Biblical and Epigraphic Data,"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1987), 147.

72 McCarter, *윗글*, 94-95.

73 *윗글*, 95.

74 Y.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271.

지 신앙으로 유다에 정립한 신학이 “제의 중앙화”이다.⁷⁵

제의 중앙화는 여호와 제의를 예루살렘에 한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드러지는 어떤 번제도 금지된다(신 12:12-13). 이는 다른 지방 성소들의 폐쇄를 의미한다. 이것은 수 세기 동안 진행된 제의 관습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정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세계 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레위인들이 함께 당시 관습화되었던 현실 종교를 활성화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중심 신앙이 아닌 백성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변형종교이다.

5. 결론

여로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정비한 “제의 중앙화”에 위기감을 느낀다. 그 핵심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여호와 제의가 허용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 여호와 신앙이 중심점이 되고 예루살렘 제사장인 사독계 제사장들은 제의 중심 세력을 이루게 된다. 또한 왕권이 제사장들을 임명하고 통제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왕권 강화 구조를 이루게 된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아론계 제사장들과 남유다의 강력한 왕권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지방 성소와 산당을 활성화시키는 종교정치로 맞대응한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종교정책은 백성들의 신앙을 유일신 여호와께로 집중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우상숭배와 점술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종교혼합 신앙으로 타락하도록 만든다. 백성들은

75 Raine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1 :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Monarchy* (SCM Press, 1994), 206.

먼 예루살렘까지 순례하는 수고를 덜어 좋아했을 것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은 약화되고 탈색되어 여호와 다윈주의 신앙으로 변색 된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 경고하심과 같이 앗시리아의 침공으로 사마리아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파국을 맞이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모세계 제사장들의 신학과 아론계 제사장들의 신학적 차이를 파악하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추구한 탈율법 중심 여호와 신앙과 남유다의 율법 중심의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모세계 제사장들이 야합한 종교정치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파국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로보암의 죄 못지않게 그들의 신상 숭배를 바로 잡지 못하고 정치에 야합했던 영적 지도자인 모세계 제사장들에게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6. 참고 문헌

- 강승일, “우림과 둠뭍 그리고 언약궤”,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20-23.
- 정중호, “여로보암 1세의 종교 정책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집 (1996년 12월), 27.
- Albertz, Rainer,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vol. 1 :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Monarchy* (SCM Press, 1994), 143, n33.
- Albright, W.F., *Archaeology and the Religion of Israel*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68), 105.
- Albright, W.F.,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0), 229.
- Ahlström, Gösta E., *The History of Anicnetn Pal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551.

www.kci.go.kr

- Bergen, Robert D., 1, 2 *Samuel*, 7 vols. (NEC: Wheton: Broadman & Holman Publishing, 1996), 82-83.
- Beyerlin, W, *Origins and History of the Oldest Sinaitic Traditions* (Oxford: Blackwell, 1961), 128.
- Blenkinsopp, Joseph, *Sage Priest Prophet*, (ed) D.A. Knigh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5), 74.
- Cochell, “The Religious Establishments of Jeroboam 1” , *SCJ* 8 (2005), 97.
- Cohen, M.A., “The Role of the Shilonite Priesthood in the United Monarchy of Ancient Israel,” *Hebrew Union College Annual* vol. 36 (1965), 87.
- Cross, Frank Moore.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195-98.
- Eliade, M.,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New York: Harcourt, Brace, 1959), 37-42.
- Frolov, Serge, “Days of Shiloh” in the Kingdom of Israel” , *Biblica* 76 (1995), 210.
- Gomes, Jules Francis, *The Sancturay of Bethel and the Configuration of Israelite Identity*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6), 125.
- Green, Yosef, “Jeroboam Ben Nanat: a reappraisal,” *Jewish Bible Quarterly* 44 (2016), 100.
- Halpern, Baruch, “Levitic participation in the reform cult of Jeroboam I” ,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5 (1976), 40-41.
- Halpern, Baruch, “Sectionalism and the Schism” *JBL* vol. 93 (1974), 519-20.
- Joseph, Alison Lori, “The Portrait of the Kings and the Historiographical Poetics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ian” (Ph. 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2012), 82.
- Kaufmann, Y.,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271.
- Knoppers, Gray N., *The Reign of Jeroboam, the Fall of Israel, and the Reign of Josiah* 2 vols. (Atalanta: Scholars Press, 1994), 35.

- Leuchter, Mark, "The Fightin' Mushites," *Vetus Testamentum* 62 (2012), 479-500.
- McCarter, JR. P. Kyle, "Samuel",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day, 1980), 89.
- McCarter, P. Kyle, "Aspects of the Religion of the Israelite Monarchy: Biblical and Epigraphic Data," *Ancient Israelite Religion: Essays in Honor of Frank Moore Cross* (Philadelphia: Fortress, 1987), 147.
- Miller, J. Maxwell and Hayes, John H., *A History of Ancient Israel and Judah*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132.
- Nielsen, Eduard, *Shechem: A Triaditio-Historical Investigation* (Copenhagen: G.E.C. Gad, 1959), 195-98.
- Pakkala, Juha, "Jeroboam without Bulls," *Zeitschrift fu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20 (2008), 501, n5.
- Talmon, S., "Divergences in Calendar-Reckoning in Ephraim and Judah," *VT* 8 (1958) 46-74.
- Toews, Wesley I., *Monarchy and Religious Institution in Israel under Jeroboam I* (SBLMS 46-47; Atlanta: Scholars Press, 1993), 71.
- Wellhausen, Julius,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Atlanta: Scholars Press, 1994), 196.

검색어

모세계 제사장

여로보암

금송아지

아론계 제사장

신상 숭배

The Relationship Between Jeroboam's Religious Reformation of Northern Israelization and the Idolatry of Mushite Priests

Eun-Pyung Ju

Sungkyul University

King Davidic dynasty focused on the centralization of the people to the temple of Jerusal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y and religious faithfulness. In order to withstand against this religious policy, King Jeroboam kept solidarity with northern Israelite Priests and Levites who supported him. To be more precise, it was not "religious policy" but "political strategy." The religious reformation of Jeroboam had to revitalize many local cultic places in order to build shrines on high places and appoint priests that were not Levites. This research i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golden-calf idolatry policy of Jeroboam and Mushite priests who had supported the success of the

www.kci.go.kr

religious policy of Jeroboam in northern Israel.

Regrettably, in stark contrast to the honorable reputation of Moses, Moses's descendants had a stand on the center of idolatry at the Dan tribe of northern Israel. We will investigate their theological identity of the idolatry thr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Mushite priests who had worked in the important cultic places of Israel at Shiloh and Dan sanctuary as well as Aaronite priests who had worked in the important cultic place at Bethel sanctuary. Depending on their theological ideology, the two differing lineages of priests either supported or were against Jeroboam's religious policy. The origin of Danite tribe's idolatry was from the Ephod, carved metal, golden idol of Micah which were regarded objects of worship. Finally, we will examine the factors that led to the decline of religious reformation of King Jeroboam. Jeroboam banded together with the Mushite priests who agreed with idolatry. It is the northern Israelite theology which accepted idol worship. Aaronite priests were against this theology. The main theological differences were whether to comply with the law or to heed the voice of people. The religious reformation of Jeroboam was associated with the popular ideology rather than the law. According to Realpolitik, therefore, it was popular rule which led to the northern Israelization of YHWH religion.

In conclusion, the reason of the destruction of northern Israel was not only Jeroboam's religious policy but also the spiritual leadership of Mushite priests.

Keywords

Mushite Priests

Jeroboam

Golden Calf

Aaronite Priests

Idolatry

- 투고일: 2022년 7월 25일
- 심사일: 2022년 8월 09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8월 11일

www.kci.go.kr